

지역 소식통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27일 접수 최종 마감

정읍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27일 최종 마감됨에 따라,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신속한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당부했다.

시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10만 1527명이 대상이다.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마감일인 2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오는 5월 31일까지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단,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전액 시정으로 환수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소비가 권장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병오년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내달 3일 개최

부안군은 2026년 병오년 정월대보름(3월 3일)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부안 일원에서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민속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10시부터 변산면 마포마을 일원에서 마포당산 문화계승위원회가 주관하여 당산제, 용줄꼬기, 길놀이 등 정월대보름 민속행사가 진행되며 부안밀알회관 및 해뜰마루에서 부안 밀알회가 주관하여 제례행사, 민속놀이, 소원배 띄우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가 개최된다.

정월대보름 하루 전인 2일 오전 10시부터 내소사 일주문 앞에서 내소사석포리당산보존회가 주관하는 당산제 행사가 열리고, 오후 15시에는 매창공원에서 부안문화도모임 도모이 주관하는 달집태우기 및 전통문화 체험 등 대보름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부안군, 작년 체류인구 도내 1위

월 평균 29만7960명... 변산해수욕장·비치펍·곰소갯갈축제 등 체류형 콘텐츠가 견인

부안군은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생활인구 분석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 시·군 가운데 체류인구 1위, 생활인구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번 3분기 성과는 여름 성수기 해양관광과 지역 축제가 맞물리며 체류인구 1위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7~8월에는 변산해수욕장 개장을 중심으로 야간 체류형 모델인 '변산비치펍'을 2025년 8월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 운영해 밤 시간대 방문객의 체류를 유도했으며,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야간 체류 경험을 제공했다.

이어 9월에는 '부안 청년축제 B:ON'과 '부안 곰소갯갈축제'를 통해 세대별 유입과 미식 관광의 체류 시간을 동시에 확대했다. 특히 부안 곰소갯갈 축제는 4만여 명의 군민과 관광객이 방문한 가운데, '곰맥(갯갈+맥주)' 파티와 갯갈 요리 런칭쇼 등 야간까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서

울호남향우회 등 출향인 고향 방문 행사를 유치하며 지역 경제 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변산면은 3개월 연속 강원 홍천 화촌면, 전남 담양 담양읍 등 전국 주요 관광 거점들과 함께 주요 방문지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부안의 해양·생태 자원이 축제 및 체험 콘텐츠와 결합해 대외적인 관광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나아가 부안군은 이러한 양적 성과를 지역 경제의 질적 성장으로 잇기 위해 핵심 정책인 '부안사랑인'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단순히 스쳐 가는 관광객을 부안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관계인구'로 전환해 정주민구 감소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부안사랑인' 제도는 부안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부안사랑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면 '부안사랑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부안군은 공공시설

4개소를 비롯해 카페, 음식점, 체류시설 등 46개소의 민간 가맹점을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군은 2026년까지 부안사랑인 가입자 2,000명, 가맹점 100개소 확보를 목표로 체류와 소비를 유도하는 이벤트를 전개한다. 주요 내용으로 △관의 거주 가입자에게 숙박비를 지원하는 '부안, 하루 더 살아보기' △부안사랑인 가맹점 이용 후 '영수증 속 부안 사랑 인증' 등을 통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과 재방문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전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해 가맹점 혜택을 숙박, 체험, 문화 등 전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부안사랑인들이 군 어디서나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부안군은 "앞으로 '부안사랑인' 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머무는 것만으로도 혜택이 되고 지역 상권에는 활력이 되는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지속가능한 복분자 왕국 재건 '박차'

### 복분자산업 활성화 간담회... 효율적 수매·생산·유통 방안 모색

고창군이 '복분자 산업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수매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복분자 왕국 재건에 팔을 걷어붙였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복분자 수매기관(지역농협), 가공업체, 생산자 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고창군 내 복분자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 수매 체계를 구축, 고품질 생산·유통 기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 복분자는 생산농가(2024년 1,705농가→2025년 1,921농가), 재배면적(2024년 363ha→2025년 423ha),

생산량(2024년 1,470톤→2025년 2,000톤)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고창군은 부서별 협업 대책을 발표하고 복분자 수매장려금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는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산업 전반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군은 이번 소통을 통해 수매기관부터 가공업체, 생산자 간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진 고창군 농업정책과장은 "복분자는 고창을 대표하는 특화작물인 만큼, 수매 기반을 안정화하고 생산자와 가공업체가 상생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1894년 그날의 함성'... 고부봉기 재현 행사 성료

### 정읍시, 농민군진군 행렬·창극과 VR 접목 융복합 공연 등 '호응'



132년 전 부당한 권력에 맞서 평등 세상을 외쳤던 농민들의 뜨거운 함성이 정읍 일대에 울려 퍼졌다. 26일 이 평면과 고부 일원서 열린 고부봉기 재현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동학농민혁명 고부봉기 기념사업

회가 주최·주관하고 정읍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인 '고부봉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당일 이평, 고부 등 옛 고부군 지역 주민들과 관람객들은 직접 농민

군이 돼 역사적 장면을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나눴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단연 '농민군진군 행렬'이었다. 이평면 예동마을에서 출발해 말목장터로 향하는 대열은 1894년 당시의 긴장감과 결기를 실감나게 재현했다. 말목장터에 도착한 대열이 격문을 낭독하자, 현장을 지켜보던 관람객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이어서 진행된 공식 기념식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서사적으로 풀어낸 창극과 첨단 가상현실(VR)을 접목한 융복합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행사는 옛 고부 관아 터(현 고부초)에서 '미담극'으로 마무리됐다. 조병갑의 폭정에 분노한 농민들의 뜨거운 함성을 생생히 그려내며 행사의 대단원을 장식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사랑상품권 1040억으로 확대 발행... 내달부터 할인율 12%

정읍시가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올해 총 1,040억원 규모의 정읍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오는 3월부터 구매 할인율을 12%로 상향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시는 최근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자금이 외부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비 70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정읍사랑상품권을 1,04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의 확대다. 시는 국비 교부 조건에 맞춰 오는 3월부터 기존 10%

였던 선할인율을 12%로 올린다.

개인당 한 달에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100만원이며, 상품권 최대 보유 한도는 200만원으로 설정해 계획적 소비와 원활한 유통을 돕는다. 상품권 구매는 매일 1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참석

### 부안군, 전국 15개 지자체와 국립공원도시 협력체계 공식 출범

부안군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협의회 참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부단체장, 담당 공무원 등 약 60여명이 함께했으며, 부안군 부군수를 비롯한 전국 15개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국립공원도시 협력체계의 출범을 알렸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먼저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창립 선언을 통해 협의회 공식 출범을 선포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어서 회장 및 임원 선

출을 통해 협의회 지도부를 구성하고 향후 운영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공동 선언문 결의 및 낭독을 통해 국립공원과 도시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간 협력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협의회 규약 및 기본 사항 확정을 통해 운영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도적으로 확립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운영방향 및 공동 협력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립공원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